

[네다일 2월 선교편지]

"포카라 다일교회를 위한 기도요청"

사랑하는 후원자님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새롭게 시작한 2015년의 한 달이 언제, 어디로 가버렸는지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다일의 1월은 서로 사랑하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되 포기하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팔다일공동체를 사랑하고 기도해주시며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넘치기를 빕니다.

네다일의 1월은 순천대에서 네팔을 가슴에 품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달려온 네품 팀과 진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봉사활동, 문화탐방, 트레킹의 삼박자를 조화롭게 맞추며 학생과 교직원 22명이 11박 12일의 일정으로 진행한 네품 봉사활동은 눈물로 부둥켜안고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무너진 강둑에 흙을 채워 넣어서 만든 마대 1200자루를 대나무로 만든 지지대에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친 환경 예술 강둑이 되었습니다.

특히 순천대 총장님께서 방문해주셔서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는 천막촌의 집시들에게 맨땅과 침상 위에 담요를 깔고, 덮을 수 있도록 사랑의 나눔을 펼쳐주실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척박한 땅에 오셔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함으로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팔의 2월은 무엇보다 포카라에 세워질 다일교회의 창립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과점과 카페를 만들어 후원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접촉점을 갖는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다일공동체 설립자이신 최일도 목사님과 다일을 사랑하는 분들로 구성된 비전트립팀이 3월 6일부터 13일까지 네팔에 오셔서 3월 8일에 창립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포카라에 처음으로 International Church와 함께 한인예배 그리고 네팔 현지인들의 예배를 드리는 포카라 다일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2월 한 달동안 함께 부르짖어 간구할 기도제목입니다

1. 포카라 다일교회가 과연 그 교회, 바로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2. 트레킹 오는 외국인들이 주일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가족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3. 특히 네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서 스스로 밥퍼, 빵퍼를 운영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포카라 다일교회 담임목사로 파송되어 오시는 꾸샬, 백수진 선교사님 부부가 잘 적응하며 포카라 다일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5. 올 해 일대일 아동결연 할 수 있는 100명의 후원자를 세워주십시오. 기존의 200여명을 넘어서 올 해 지금까지 10명이 결연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6. 그동안 수고하고 떠나는 선우진주, 이정화, 선한주 간사님 세 분은 마무리 잘하고, 새롭게 오시는 임현오, 이은지, 김수영 세 분 간사님들이 잘 적응하고 사명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7. 저희 부부가 네팔다일공동체를 잘 섬겨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아이들이 올해 하나님이 예비한 학교에 입학하고 잘 다녀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 전심전력을 다하는 2월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Our Children Our Hope"

### [자원봉사자 신청 및 후원안내]

최 흥 원장 + 977 98494-58330, 98038-00670

후원계좌 : 국민은행 467701-01-157448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국으로의 후원>

pay to :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순천대학교 사회봉사팀 일동>



<밥피 봉사>



<순천대학교 사회봉사팀 일동>



<네팔다일공동체 최홍원장과 아이들>



<강둑 만들기>



<친환경 강둑>